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뉴스초점

사료·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유류 면세혜택 계속 유지

정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결함이 커질 것에 대비해 그간 사료 및 기자재에 적용했던 부가세 영세율을 면세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여 왔으나 양축농가의 거센 반발로 당초 계획에서 물러나 현행대로 영세율 적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유류의 면세혜택도 폐지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나 농업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도 종전과 같이 유지되게 되었다.

사료의 경우 영세율에서 면세로 전환할 경우 사료가격은 산란계가 5.8%, 육계는 5.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생산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8일 TV를 통하여 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촌 지원과 관련된 답변에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유류 면세는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축산농가의 불안감은 해소되었으나 다른 방법을 통해 세수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향파악과 함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화업체 긴급운영자금 지원

570억 중 389억원 양계부문에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총 570억원을 축발기금에서 긴급 편성하여 지원키로 하고 이미 지원업체까지 선정하여 지원금액을 확정된 상태에 있다. 이 예산 중 양계부문에

389억원이 투입되어 사육비 및 금융비용 손실, 환차손 등 운영비에 활용토록 해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계열주체를 지원하고 나아가 사육농가도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반 육계농가와 종계업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심한 반발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가격 재인상 움직임

환율 다소 하향세 유지로 자제 기대

환율이 1,600원선일 때 사료곡물을 구매했던 업체들이 이 원료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10일을 전후해 8~9%선에서 사료가격 인상을 검토했던 공급업체들이 자진 철회했던 인상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양계농가를 불안케 하고 있다.

그간 사료용 원료가격이 약간 하향세를 유지하고 환율도 1,500원대까지 접근하는 추세에 있으나 구매 당시에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재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양계농가는 생산성이 저조한 계군은 과감히 도태를 하여 사료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97종계입식량 생각보다 많아

환우계 증가와 질병 급증세

사료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가격이 대폭 인상된 관계로 종계입식이 저조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으나 실제 입식량은 지난 '96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종계는 58만7천

수가 입식되어 전년에 비해 6%가 증가했으며, 육계종계는 394만7천수가 입식되어 약 6%가 감소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12월의 종계사료가 2만2천톤대가 유지되어 도태보다는 환우 쪽으로 입장이 바뀌어 육용계 병아리 가격이 100원대를 유지하는 전례없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종계장에서 현금 수요는 증가하는 대신 병아리 가격은 매우 낮아 1월말부터 도태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견이 되어지고는 있지만 가격상승거래 심리가 작용하여 당분간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상승 후 생산비 상승

육계 1,500원, 계란 85원, 병아리 430원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상승 한 후 양계산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비의 인상으로 생산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감소로 인한 출하가 하락으로 도산위기에 놓이고 있다. 지난 12월말을 기준으로 주로 사료가격 인상분을 중심으로 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육계는 kg당 1,500원, 계란 개당 85원, 육계 병아리 수당 430원, 산란 병아리 수당 800원대로 각각 산출이 되어 약 35% 정도의 생산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로 인상된 각종 공과금, 유가, 동물약품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생산비는 더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육 후 산물출하가격은 생산비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수개월내에 도산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계**